

# '최저임금' 반발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에 반대해 28일 총파업에 나선다. 국회 환노위가 지난 25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환노위 의결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강행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전면 개악으로 규정한다"며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노동공약 전면 파기와 노동존중 국정기조의 허구성을 스스로 드러내며 대해 규탄하며 강력

## 본회의 상정시 오늘 오후 2시간이상 파업 조합원 지침시달...국민청원·SNS서명

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각지 해당 거점에서 오후 3시부터 2시간이상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위해 민주노총은 전 조합원들에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전체 조합원 오후 3시를 기해 저지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또 청와대 국민청원, SNS 인증샷 남기기운동 등 온라인

을 통해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반대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하라'는 청원이 올라와 동의 서명이 진행중이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지난 25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에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초과분, 교통·숙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은 7%를 넘는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매월 상여금을 50만원씩 정기적으로 받는 노동자라면 25%의 초과분인 10만6588원 가량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만 이 비율은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전액에 최저임금이 산입된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28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할 예정이다.

뉴시스

## 이스라엘 전폭기, 가자지구 미사일 폭격

이스라엘 전폭기들이 16일 밤 자정께 (현지시간) 가자지구 남쪽에 있는 하마스 이슬람조직의 거점 두 곳에 대해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팔레스타인 의료기관과 보안군 소식통이 전했다.

이스라엘 제트 전폭기들은 가자 남서부의 라파 마을 부근에 있는 하마스 군 훈련시설에 여러 발의 폭탄을 투하했으며 현지 의료진과 소방대가 피해 지점을 향해 급히 출동했다. 아직까지 사상자 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공군은 가자지구 남쪽에 있는 칸 유니스 마을 서쪽의 또 한 군데 군사시설도 폭격했다고 의료진들이 말했다. 이 지역들은 이전부터 이스라엘측의 공격으로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곳이다.

이번 공습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의 국경 철책을 뚫고 침입했던 팔레스타인 청년 4명의 월경에 대한 보복으로 거행되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언론들은 청년들이 이스라엘쪽 국경을 넘어 침입해서 이스라엘군 초소 한 곳을 불태우고 다시 가자로 돌아왔다고 보도했었다.

팔레스타인 청년들은 폭발물을 실은 대형 연과 풍선들을 이스라엘 쪽으로 날려보내서 몇 군데 농장에서 대화재가 일어나기도 했다고 양측 언론은 보도했다.

가자지구에서는 3월 30일부터 이스라엘과의 국경 철책에 대규모로 움직인 팔레스타인 군중들의 항의 시위와 행진이 계속되었다. 지금까지 총116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해당했고 수 천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그리스서 시외버스 버락 맞아 전소

그리스 소방청은 북부 터키와의 국경 부근 도시 사이를 왕복 운행하는 시외버스 한대가 26일(현지시간) 심한 폭우 속에서 버락을 맞아 전소되었다고 발표했다.

버스는 북동부의 알렉산드로폴리스 시를 출발해서 오투스타이다 마을을 향해 가던 중 갑자기 버락을 맞아 불이 붙었다고 소방대원들은 말했다.

운전사는 불이 붙은 버스를 정차시키고 12명의 승객과 차표 받는 차장을 대피시킨 후야 자신도 버스에서 빠져 나왔다. 다친 사람은 없고 모두 무사했다.

사고 직후 소방트럭 6대와 18명의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해서 어렵게 불을 끄지만, 결국 버스를 구하지는 못했다.

## 캐나다 음식점서 사제폭발물 터져 15명 다쳐

24일(현지시간) 캐나다의 한 음식점에서 사제폭발물이 터져 15명이 다쳤다. 경찰은 용의자 2명을 추적 중이다.

캐나다 글로벌뉴스, CBC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온타리오주 미시소가의 인도 음식점 '봄베이 비הל(Bombay Bhd)'에서 폭발이 발생해 15명이 다쳤다.

현지 의료 당국은 이번 폭발로 15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3명은 중대에 빠져 외상센터로 이송됐으며 나머지 12명은 경상을 입었다.

음식점에 있던 한 시민은 "아이들과 화장실에 있다가 커다란 폭발음을 들었다"며 "밖에 나와 보니 모두들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창문이 깨지고 피가 튀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용의자 2명이 음식점 내부에서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뒤 현장을 떠났다고 밝혔다. 용의자들은 밝은색 피부의 남성들이라고 전해졌다.

## 콩고 강에서 여객선 침몰 49명 사망

콩고민주공화국(DRC)의 북서부에 있는 콩고 강에서 23일 밤(현지시간) 나룻배가 침몰해 최소 49명이 사망했다고 24일 이 지역 추이파주의 음보요 일투가 주지사가 발표했다.

일투가 지사는 이 배가 콩코토 마을에서 출발해 음반다카로 가던 중이었으며 침몰 원인은 당장에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은 현재 지방정부의 구호본부와 구조 책임자를 행정 관리들의 팀이 구성되어 현장조사를 위해 파견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콩고 강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들은 대개 선박의 상태가 너무 열악하거나 승선 정원을 초과해서 너무 많이 태운 것이 원인일 경우가 많다고 현지 당국은 밝혔다.

지난 4월에는 같은 지역에서 군부대를 습격한 무장세력과 군대의 교전을 피해서 피난하던 42명의 민간인이 우방기 강에서 배가 침몰해 모두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다.

## 말다툼 끝 후배 살해 60대 항소심서 감형

말다툼 끝에 흥기로 후배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와 함께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69) 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회복할 수 없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수법도 매우 잔혹해 비난받아 마땅하다. 단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했는데 이는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 요소"라고 말했다.

또 "고령임에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도 고려해야 할 정상이다"며 감형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전 11시30분께 전남의 한 지역에서 후배 B(당시 65세) 씨를 흥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와 함께 아파트 재건축 조합 일을 하던 A 씨는 B 씨와 급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유로운 제주 해변 맑은 날씨를 보인 27일 오후 제주도 구좌읍 월정리 월정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찾아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17명 사상 담양 펜션화재' 소유주 90% · 관리기관 10% 책임

### 전남도, 소유주 상대 제기 구상권 청구 소송 승소

비비큐장 화재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담양 펜션 운영자 부부와 관리감독 기관인 전남도에 각각 90%·1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적인 판단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홍)는 27일 전남도가 펜션 소유주 최모(59)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20억877만4756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에 90%의 과실비율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비비큐장은 성인 1명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1개의 출입문과 환풍기 2대가 설치돼 있을 뿐 다른 출입문이나 창문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순진 학생이 숯불 화덕의 화력을 줄이기 위해 물을 붓는 순간

화재가 발생했지만 비비큐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바깥으로 대피하기 위해 유일한 출입구 쪽으로 몰려간 사실 등으로 미뤄 화재는 피고들의 비비큐장 설치상 하자과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과실비율은 90%이며 원고가 시장지와 중상자 유족에게 지출한 원금과 이자 합계 20억877만4756원 중 18억789만7280원과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지난 2014년 11월15일 오후 9시40분께 담양 한 펜션 비비큐장에서 불이나 대화재와 쏘입생 등 5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펜션 소유주인 최씨 부부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

겨져 최씨는 징역 4년, 부인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받았다. 이들의 항소는 기각됐다.

사상자들의 유족과 가족은 지난 2015년 1월8일 최씨 부부와 전남도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16년 4월7일 최씨 부부에 대한 과실과 함께 전남도의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만큼 연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전남도는 유족 11명과 중상자 1명에 대한 손해배상 원금과 이자를 지급했다.

전남도는 최씨 등 2명이 전남도가 지급한 금액으로 면책을 받은 만큼 일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며 펜션 소유주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춘정 기자

# 모두, 안녕하세요?

##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일반 건강검진

생체전환기 건강검진

영양 건강검진

혈 검진

구강 검진

###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항목	건강검진 받지 않은 사람	건강검진 받은 사람
심혈관 질환 발생률	42%p 감소	
암 발생률	18%p 감소	

\*본표는 건강검진에 참가한 1차 1차 건강 검진 참여자.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h-well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 |